



배 타고 투표소로... 신안군 장병도 주민 10여명이 10일 오전 투표를 하기 위해 배편을 타고 하의면 하의옹곡선착장에 도착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투표하는 유권자의 손 10일 광주 남구 라인호텔아파트 주차장에 마련된 방림2동 제2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정권 탈환 맨 앞자리 서겠다

●정진욱(광주 동남갑)

고물가 민생 파탄, 경제 추락을 가속화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아 서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의정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 진정한 개혁이자 시대적 과제인 윤석열 정권 청산과 정권 탈환을 위해 맨 앞자리에 서겠다. 남구는 할 일이 많은 지역이다. 대촌에 있는 산업단지 2곳에 기업 유치로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어르신 복지, 교육, 교통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호남 정치의 전성기를 다시 활짝 열겠다.

광주 경제 살리는 '큰 일꾼' 될 것

●안도걸(광주 동남을)

낙후된 광주 경제를 살리려는 '큰 일꾼'이 되겠다. 광주의 심장부인 원도심의 맥박이 다시 고동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문화관광 산업을 키워내겠다. 벤처기업 창업이 줄고, 고향 청년들이 집밥 먹는 일자리가 쏟아지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작된 명품 공연을 보려고 국내외 관광객이 밀려 드는 '글로벌 명품부자도시 광주'를 만들겠다. 동·남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을 속시원하게 해결하겠다. 나라 재원 배분 등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량있는 '큰 정치인'이 되겠다.

망가진 국가 시스템 정상화

●조인철(광주 서구갑)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겠다.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광주를 4차 산업혁명 중심의 경제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또한 AI(인공지능), I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산업에서 파생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직업을 찾아 떠났던 시민과 청년들이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 상무 도심융합특구를 조속히 완성, 광주만의 테크노밸리인 '빛고을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미래산업 관련 기업 등의 유치 기반을 닦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서구의 호위무사로 거듭나겠다

●양부남(광주 서구을)

후퇴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공정한 사회, 더 큰 광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갈망하는 많은 요구와 과제를 기억하고, 국회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껏 일하겠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AI에 기반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해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 또한 중앙지구 입구 교차로부터 서구문화센터 편도 2차로 구간과 금호1동 호반 3차에서 상무 2동 구간, 서창농협지점부터 백마사거리의 도로를 확장하겠다. 이재명의 호위무사에서 서구의 호위무사로 거듭나겠다.

존재감 사라진 호남 정치 복원

●정준호(광주 북구갑)

호남 유일의 청년 당선자로서 추진력·돌파력으로 지역이 처한 문제,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에 답을 내놓겠다. 쇠락한 상권을 되살려 청년들로 북적이는 활력 넘치는 북구를 만들겠다. 답답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문화향유 공간을 채워 내 집 앞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북구를 만들겠다.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정확하고 당당하게 전달해 호남 정치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 지역이 마땅히 쟁겨야 할 실리를 확보해 균형있고 힘 있는 호남 정치의 새 모델을 보여드리겠다.

엄마의 마음으로 정치하겠다

●전진숙(광주 북구을)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엄마의 마음으로 정치하겠다. 서로 증오만 하고 분탕질만 치는 정치에 매서운 매가 되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 먹고 사는 문제를 국회의 중심에 두고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겠다. 패밀러랜드를 첨단 복합 문화 테마파크로 탈바꿈하고 인근의 광주 비엔날레 일대 등과 연계해 아시아 문화·관광 콘텐츠의 거점으로 조성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검찰 개혁 반드시 해내겠다

●박군택(광주 광산갑)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내겠다. 검찰 직접수 사건 완전 폐지, 검찰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확대 및 구제적 인사 내용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 북방북지타운 기반 마련을 위한 평등 포사격장 폐지, 농촌 주거복지 향상과 농촌 유입 인구 증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농민·소매상의 소득 증대를 위한 야외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겠다. 선운·운남·우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

민주주의·민생 되살리기 매진

●민형배(광주 광산을)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신속하게 끝내고 민주주의·민생을 되살리는데 매진하겠다. 공약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착실하게 이행하겠다. 국민의 힘에 '사망 선고'를 내리고 민주당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이 더 강하게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맨 앞에 서겠다. 윤석열 검찰 독재와 확실하게 싸워 당내 정치적 입지를 키우겠다. 정치적 중립감을 토대로 광주가 가져야 할 정당한 뜻을 가져 오겠다.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울 때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의 힘을 모으겠다.

중단없는 목포 발전 이룰 것

●김원이(목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중단없는 목포 발전을 이루겠다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힘 있는 재선 의원이 돼 반드시 보답하겠다. 목포시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권 심판의 맨 앞에 서겠다. 오직 목포시민만 믿고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 중단 없는 목포 발전, 반드시 이루겠다. 목포의대 유치, 목포역 대개조, 목포·신안 통합, 해상풍력 메가 목포 등 제대로 마무리하겠다. 오직 목포, 오직 민생만 생각하며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목포시민 삶의 현장 곳곳에 늘 함께 하겠다.

전남 동부권 시대 활짝 열겠다

●주철현(여수갑)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재선 의원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남 민주정권 창출의 선봉이 되겠다. 여수를 선 거구 조계원 당선자와 상생 협력해 하나 된 여수, 고르게 발전하는 여수를 이뤄내고 여수 중심의 전남 동부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 공약으로 제시한 여수박람회장 공공 개발, 남면 해상교량 건설, 여수 전남대학 교병원 설치, 여수고속도로 건설, 세계적 해양레저관광도시 여수 건설, 계곡 해양레저관광도시 여수 건설, 석유화학산단과 지역사회 상생 협력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수 발전 100년 기틀 다지겠다

●조계원(여수을)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의 선봉장이 되겠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늘 가슴에 새기는 여수시민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다. 갈등과 분열의 여수 정치문화를 쇠신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로 여수 정치 체질을 개선하겠다. 시민 삶을 쟁기는 '든든한 머슴'이 되겠다. 여수형기본사회, 국제해양관광수도, 남해안 메가시티의 중심, 기회의 땅 청년도시, 신산업 중심 성장도시 여수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이다. 시민의 저력을 한데 모아 여수 발전 100년 기틀을 다지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 최일선 설 것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새기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제22대 국회 최일선에서 민생파탄, 검찰독재, 부정부패, 골육외교, 극한무능, 극우이념, 평화과괴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순천대 의대와 병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수도권 대도시 대응하는 인구 100만 남해안·남중권 통합생활권을 조성하겠다. 순천·여수·광양의 상생과 협력에 앞장서 특례시 기반을 마련하겠다.

국민 소중히 여기는 정치 실현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46년 만에 전남 여성 정치인을 탄생시켰다. 뜨거운 열정과 압도적인 지지 덕에 당선이라는 영광을 안게 됐다. 순천·광양·곡성·구례 상생클러스터 구축, 광양제철 국가첨단전통합물류센터 건립,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섬진강유역 환경유역청 설립 등 5대 공약을 비롯해 지역별로 제시한 12개 공약을 지역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사회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 실현하겠다.

나주·화순을 미래 선도 도시로

●신정훈(나주·화순)

호남 경제를 살리겠다.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 무엇보다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이 제대로 대접 받는 공평한 대동 세상을 만드는 데 한 몸 온전히 바치겠다. 나주에는 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를, 화순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나주·화순이 광주·전남 미래를 책임지는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 농업인 기본법 제정과 새양곡관리법, 과일산업진흥법을 만들어 청년들이 앞다퉈 농사를 짓는, 아기 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주·화순을 만들겠다.

김대중 정신 계승 호남정치 복원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무능과 독재로 대한민국과 민생 경제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쏟겠다. 4선 의원으로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 정치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 약속드린 지역 발전 공약을 조속하고 성실히 이행해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지방시대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 현안 꼼꼼히 챙기겠다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드린 모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의원들과 함께 우리의 고향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챙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투박투박 나가겠다.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어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겠다. 농어민의 안정된 삶,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균형 발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모든 경험과 능력을 쏟겠다. 소수와 특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웃 모두를 위한 정치, 사회적 약자의 옆에서 함께 나아가는 정치를 하겠다.

대화 정치 복원에 경륜 쏟겠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해남·완도·진도를 확실하게 발전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 끝까지 싸워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김건희·채상병·이태원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 민주주의가 더 이상 파탄나지 않도록 국정기조를 전면 쇠신해야 한다. 대통령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지지하고 잘못한 것은 호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정치 선배로서 제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생산적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정치 복원에 경험과 경륜을 쏟겠다.

3선의 힘 바탕 지역 발전 보답

●서삼석(영암·무안·신안)

2018년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되며 '서민과 농수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었다'고 국회 첫 등원 인사를 드렸다. 의정활동 내내 단 한 순간도 다짐을 잊은 적 없다. 경제 폭망 등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낙후된 지역과 인구소멸 위기의 지역을 위해 더욱 힘쓰라는 준엄한 명령과 성원에 감사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농산어촌 회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하겠다. 3선의 힘으로 정권 심판과 지속적 인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회호 220603-중-139779